

광주·캐나다 학생들 ‘오월 정신’ 함께 배웠다

시교육청, 캐나다서 5·18사진전·플래쉬몹 공연 선배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책으로 세계로’ 프로그램

광주 학생들과 캐나다 학생들이 5·18 행사를 함께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과 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 등이 후원하고 토론토 한인회 주최로 마련됐다.
광주 학생들의 참여는 토론토 한인회에서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책으로 세계로’ 프로그램으로 캐나다를 방문한 학생들을 초청하면서 이뤄졌다. 학생들은 이날 토론토 한인회관 대강당에서 ‘광주 정신, 위대한 유산’을 주제로 5·18의 기록과 진실을 담은 사진 40여점을 전시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 플래시 몹, 아리랑 공연 등을 선보였다.

사진전은 관람객들에게 그날의 아픔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또 광주 학생들이 현지 학생들이 함께 5·18 정신을 체험하고 배우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토론토 한인회 김정희 회장과 캐나다법민주원 탁희의 김충현 의장은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광주 학생들은 이미 탁월한 글로벌 리더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성덕고등학교 김지혁 학생회장은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 학생들이 지난 18일 캐나다 토론토 네이션스 필립스 스퀘어에서 ‘광주정신, 위대한 유산’ 5·18 기록과 진실을 담은 사진전을 개최했다. 광주 학생들이 든 40여 점의 사진을 캐나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체험하고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라며 “학생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고흥군은 최근 관내 중학생 18명을 대상으로 일본 해외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고흥군, 중학생 해외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일본 도쿄대 등 주요 명소 방문...글로벌 인재 역량 강화

고흥군은 최근 중학생 18명을 대상으로 일본 해외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02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년째 운영되고 있다.
참가 학생은 16개 중학교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된 청소년 단체활동 우수자들이다.
학생들은 일본 도쿄를 중심으로 아사쿠사 관음사, 도쿄대학교, 디즈니랜드, 몰입형 디지털 아트 전시관 ‘타임 플래닛’ 등 주요 명소를 방문해 일본의 역사, 문화, 예술을 체험했다. 이를 통해 국제적

시야를 넓히고 다양한 진로 가능성을 탐색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일상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고,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세계와 시대를 이끌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와 넓은 세상을 경험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지역 인재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나주시와 전남대 예술대학이 최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나주시-전남대 예술대학, 전통문화예술 발전 맞손

문화교류 확산·청년 예술인 네트워크 구축

나주시와 전남대학교 예술대학이 전통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윤병태 나주시장, 허진 전남대 예술대학장, 윤혜진 국악학과장, 이용식 교수와 국악학과 학생들이 참석했다.
협약은 올해 개관 5주년을 맞이한 나주신청문화관을 중심으로 전통 문화예술의 발전과 청년 예술인 양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그동안 천년 나주목 전통예술의 보고인 ‘나주신청’의 역사와 신청 출신의 예술인을 발굴하고 알리기 위해 꾸준히 학술연구와 공연, 다류

제작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대표 공연인 남도문예르네상스 ‘흥겨운 나주소리-판’을 5년 동안 개최하며 명창 공연, 나주삼현육각, 나주민요 등 시립국악단과 함께 남도의 소리 문화를 알려왔다.
나주신청문화관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통문화예술 발전 및 학생들의 교육장으로 젊은 예술인들의 공연장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윤병태 시장은 “나주시와 전남대 예술대학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나주신청문화관이 전통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계기가 돼 청년 예술인 양성의 산실로 발돋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철 기자



광주사회서비스원-광주보훈병원 협약

공공돌봄·공공보건의료지원 맞손

광주사회서비스원(원장 김대삼)과 광주보훈병원(병원장 이삼용)은 19일 광주보훈병원에서 공공돌봄 및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 양 기관 협업을 통해 지역 내 공공돌봄과 의료사회 사업 공동 노력을 통한 돌봄공백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자는 목표로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공공돌봄 및 공공보건의료 협력사업 수행(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등), 양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사회적 약자 대상 협력사

업), 지역 돌봄 및 보건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이다. 협약에 따른 양 기관은 긴급돌봄서비스와 함께 퇴원 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돌봄 종사자 대상 환자별 특성(질병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돌봄서비스 역량을 강화한다.
김대삼 광주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 시민의 행복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PEOPLE

2025년 5월 20일 화요일



전국한우협회 여수시지부

한우 78kg 사회복지시설 후원

여수시는 최근 (사)전국한우협회 여수시지부가 가정의 달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해달라며 300만원 상당의 한우 78kg를 후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정기명 여수시장과 이정만 (사)전국한우협회 여수시지부장, 최상근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후원은 한우 사육 농가들이 도축장에 출하할 때 1두당 일정액을 거출해 조성한 한우자조금으로 마련됐다.
시는 노인,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12곳에 한우를 전달했다.
이정만 (사)전국한우협회 여수시지부장은 “앞으로도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공유하며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뜻을 전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매년 변함없이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시는 (사)전국한우협회 여수시지부에 감사드립니다”며 “기부해주신 한우와 농가의 따뜻한 마음까지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181@gwangnam.co.kr



김창숙부띠끄로

무안군에 4억 상당 의류 기부

무안군은 최근 김창숙부띠끄로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여성 의류 1만1116벌(4억원 상당)을 기탁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기탁식은 최성열 김창숙부띠끄 총괄이사를 비롯해 김산 군수, 김동국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처장, 나만희 무안군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창숙부띠끄의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가정의 달을 맞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펼쳐졌다.
기탁된 의류는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해 전달될 예정이다.
최성열 김창숙부띠끄 총괄이사는 “이번 기탁으로 조금이나마 우리 이웃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으로 더불어 사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산 군수는 “무안군민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군에서도 지역민의 복지증진과 상생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

게시판

결론 ▲류선용(법무부 의료과)·양호정(순천시청 관공과장) 씨의 아들 시형(미래기계기술)군, 김삼진(KT 부장)·이향란씨의 딸 혜빈(순천 평화병원)양=6월 7일(토) 오후 1시 30분, 전남 순천시 서면 압곡길 94 아모르웨딩홀 4층 그랜드볼룸.
알림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송상담, 노인학대 신고=노인학대를 당하고 계신 분, 목격하거나 알게된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문의 1577-1389.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결음센터. 문의 062-374-2818.
모집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는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의 062-266-8500.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신창동 보은사 목련향정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운세 (음력 4월 23일)

48년생 주변사람의 간언이설에 속지말라
60년생 세상에 독물장군은 없는 것
72년생 과감하게 시도하라
84년생 조심으로 반영하는 것이 낫다
96년생 내 호주머니 노리고 있으니 조심
51년생 재난이 일어날 징조가 보인다
63년생 가장 쉬운 것부터 실행하라
75년생 귀하의 능력을 널리 활용하라
87년생 실질적인 영향력이 발휘된다
99년생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해두자
54년생 잘 생각해 보면 잡히는 것이 있다
66년생 백만 대군의 힘을 가질 수 있다
78년생 절치대로 이행함이 순리
90년생 핵심 내용에 부실함이 보인다
57년생 다 끝난 일이 다시 불거진다
69년생 여기저기 눈치 보지 말라
81년생 우연한 계기가 필연으로 연결되겠다
93년생 변화를 예고하는 사건이 터지겠다
49년생 부동선 거래는 단념하라
61년생 친한 사이라도 비밀을 발설치 말라
73년생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85년생 기다리는 마음을 가졌으니 성공
97년생 이상으로 인한 구설수를 조심
52년생 물러서지도 못하는 애매한 처지
64년생 거래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76년생 겉보기 보다 내실을 기해야 한다
88년생 마음먹고 대로 행해도 지장이 없다
55년생 평소 건강에 신경을 쓰라
67년생 주관을 확실하게 밝혀보라
79년생 즉각적인 답변을 피해야
91년생 유지하고 있을 때 효과적
58년생 파트너와 불화 있었다
70년생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82년생 각별한 사이일수록 약속을 지키라
94년생 준수해야 진행에 차질이 없다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작명

50년생 늑여겨왔던 것이 문제가 생긴다
62년생 이로움이 전개 될것
74년생 옳은 일에 나선다면 도를 것이다
86년생 배우자와 상의하여 결정하라
98년생 데이트 가는데 친구와 동행하지 말라
53년생 이별수가 예상된다
65년생 협력자와 의견충돌이 예상된다
77년생 대범하게 처리하는 것도 좋겠다
89년생 능력은 없으니 준비를 철저히 하라
56년생 결과가 의중처럼 좋은 하루
68년생 부화뇌동하다가 곤란해질 수 있다
80년생 중요한 거래는 내일로 미루라
92년생 충고나 도움말을 받아들이라
58년생 과감한 판단이 결성을 부른다
71년생 자녀 문제로 고민하게 된다
83년생 뒤돌아 보는 것이 순리
95년생 지금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